

<동정자료>

문성요 청장, 지역건설경제 활성화 방안 모색 “안전사고 예방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”

전북특별자치도 건설단체연합회와 간담회, 건의사항 청취

- 문성요 새만금개발청장은 7월 1일 지역기업과 상생 방안을 논의하고, 침체된 지역건설 경기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전북특별자치도 건설단체연합회 임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.
- 연합회측에서는 소재철 회장을 비롯한 10여 명의 임원들이 참석했으며, 지역 건설경기의 어려움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현장의 소리를 전했다.
 - 전북도내 건설업체는 5,406개로 전국의 6.1%를 차지하지만, 건설 규모는 7.3조원으로 2.9%에 불과해 지역 내 업체의 경쟁이 가열되고 있다고 밝혔다.
- 연합회는 수주확대 지원과 지역업체 우대를 위한 제도개선, 새만금 남북 3축 도로 조기 건설과 수변도시 공공임대주택건설 적기 공급 등 전북지역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필요 사항을 건의했다.
- 문성요 청장은 “새만금 사업에 대한 지역기업 우대 기준이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지역건설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고민하겠다”고 밝히며, “건설현장은 항상 많은 위험이 수반되는 곳으로, 현 정부가 강력히 추진하고 있는 안전사고 예방에 적극 동참해 줄 것”을 당부했다.

2026. 7. 1.

새만금개발청 기반시설과